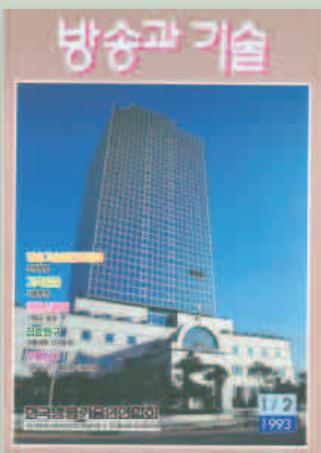


응답하라 ‘방송과기술’

방송기술 발전좌담회(5)

조명 부문



1993년 1/2월호, 통권 제28호

표지설명

지난 12월 21일 기독교 방송국은 새로 단장된 목동 신사옥으로 이전하여 목동의 시대를 열었다. 넓게 펼쳐진 목동 별관 위로 우뚝 솟은 모습은 당당히 그 위용을 과시하듯, 방송의 새 역사 를 펼쳐나감에 부족함이 없다. 목동 신사옥 준공을 기념하는 뜻에서 사옥 전경을 표지 것으로 실었다.

글을 수록하며

1993년 1월 30일 발행된 ‘방송과기술’ 통권 제28호 CBS의 목동 신사옥이 24년 전에 지어졌네요. ‘목동 별관 위로 우뚝 솟았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24년 전의 목동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4년의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겠죠. 방송기술도 강산의 변화만큼 새로 위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방송기술 발전을 위한 좌담회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조명 부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고민이 있었네요.

고민들이 지금은 해결됐을지 궁금하네요.

-편집자주-

참석자 : 이위찬(KBS 중계국)

김태홍(MBC 제작기술부)

이상철(EBS 제작기술부)

김기연(삼화양행)

사회자 : 김태홍(MBC)

사진·정리 : 이경미 (연합회 기자)

일시 : 1993년 1월 8일 15:00 ~ 17:00

장소 : 연합회 사무실

사회자 Ⅰ 연합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방송기술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제별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번 '중계방송과 음향'에 이어 다섯 번째로 '조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KBS, MBC, EBS에서 조명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과 조명 관련 업체인 삼화양행에서 한 분이 참석 하셨습니다. 방송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명 부문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 앞으로 조명의 발전방향, 인력 수급 관계, 조명 장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이 조명의 위치를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MBC의 경우는 조명분야 기술인들이 '조명의 전문성'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조명분야를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뽑아서 수습기간이 끝나면 분야별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 조명에 전혀 문외한인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몇 년 동안 혼자 고심 고심한 끝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조명에 대해 기술을 축적하고 나면 그때는 '전문직'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해도 옮겨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 10년 동안 꼬박 조명만 했는데 체력적으로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나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작업을 다 끝마쳐 놓아야지, 끝난 후에는 뒷정리하느라 늦게 가야지, 또 무거운 조명장비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보다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고달픕니다.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들도 서로 안 오려고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징적인 일을 예로 들면, 작년 4월을 계기로 방송사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MBC 조명기술부를 없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는 조명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이위찬 Ⅰ 저는 중계 쪽만 담당하고 있는데 중계 쪽은 모두 Non-Studio이기 때문인지 조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조명에 따라 카메라 영상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등이 확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LD권한으로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PD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습니



사회자 | EBS는 조명실이라고 합니까?

이상철 | 네. 직원 4명에 용역 2명 정도가 조명실에서 같이 일합니다. 오늘도 3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루에 보통 4~5개 프로그램을 녹화하는데 각 프로그램 세트마다 다 쫓아다녀야 하므로 한 프로가 끝나자마자 다음 프로 세트장으로 가서 조명 설치하고 끝낼 때까지 보통 2시간의 시간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매번 똑같은 생활의 반복 속에서 정신적인 여유나 육체적인 휴식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이위찬 | 제 생각에는 KBS가 아무래도 규모나 인력 면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조명 파트를 따로 독립된 부 이상으로 독립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BC나 EBS에도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KBS가 주도한다고 볼 때 조명분야도 우선 KBS 내에서 별도 부서로서의 조명의 자리를 잡아가거나 조명직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MBC 조명 기술부가 있었을 당시 16명이 전부였습니다. KBS는 우리보다 더 많은 40~50명에 이르는 조명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로써 독립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네요.



‘TV의 기본은 조명이다.
기본을 도입시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꼭하고 싶습니다.
누가 기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명
인들이 조금씩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조명
기술자가 아닌 예술을 창조하는 조명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 MBC 김태홍씨

이위찬 | 금년 KBS의 경우 신입사원을 뽑을 때 라디오 PD, TV PD를 구분해서 뽑았습니다. 그것은 업무 섹터를 확실히 하려는 PD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듯 우리 기술인들도 영상, 음향, 조명, 중계, 송출 등 각기 분야별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자주적인 노력이나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기술인들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사회자 | 현업 조명인들 외에는 조명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요구사항이나 자기 목소리를 내도 전달이 잘 안됩니다. 말하자면 ‘한직’으로서의 조명의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위찬 | KBS가 모범을 보여야 함이 절실하군요.

사회자 |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조명은 예술입니까? 기술입니까?’

이위찬 | 예술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사회자 | 제가 생각할 땐 카메라보다 더 예술적이라고 봅니다. 단지 인식이 부족해서 인정을 못 받을 뿐입니다.

이위찬 | 그 문제는 곧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 원리가 팽배해 있어 필요한 것은 금방 부각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나중에 하이비전 시대로 접어들면 조명의 중요도는 하늘만큼 치솟을 것이고 그러면 그땐 조명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부터 예술성에 대한 인식마저도 고조될 것이며 조명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키를 지닐 날이 오리라 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가는 그 키마저 얻지 못하고 빼앗길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 준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조명이 모든 프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 최선의 자취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방송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KBS가
주도한다고 볼 때 조명분야도 우선 KBS 내
에서 별도 부서로서의 조명의 자리를 잡아
가거나 조명직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음향, 조명, 중계, 송출 등
각기 놀라워 별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수
있도록 다각도로 자주적인 노력이나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 KBS 종계국 이위찬

김기연 : 저도 한 10년 동안 조명을 했습니다. 예전과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삼화양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조명의 길을 계속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명계의 문제점은 선배들이 이론 정립을 안 해 놓았다는 것과 우리 색깔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쪽의 색깔이 막 섞여 있습니다. MBC는 일본과 비슷하고 KBS는 미국 쪽의 성향이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장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비로 계속 사용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때와 장소, 분위기에 맞는 기자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배들이 더 많은 연구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 후배들에게 직접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명계의 문제점은 선배들이
이론 정립을 안 해 놓았는 것과 우리 색깔
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선배들이 더 많은 연구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 삼화양행 김기연씨



사회자 | 네, 맞습니다. 조명의 역사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책자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것은 조명계의 맥을 끊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김기연 | 지금도 보면 주피터나 수퍼스캔 등이 나오는데 50년대, 60년대 그림을 놓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사회자 | 예술이지만 이론적인 기초가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위상 정립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먼저 정립을 시킨 후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m에서 몇 lux가 나오고, 2m에서는 몇 lux가 나오고, 디비전 제로로 꺼졌을 때는 얼마나 떨어지고 색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하는 데이터들을 통상적인 것 편차 5%에서 비디오로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이론적으로 증명한다면 조명의 중요도를 다 인정할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방송기기 전시회에 가면 팜플렛을 모으는데 그러한 팜플렛에는 일부분이나마 이론적인 데이터가 적혀있어 그거

나마 자료로 모으기 위해 전시회만 가면 으레 조명 관련 회사 팜플렛을 가져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김기연 | 업체에서는 무인시스템을 만들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바톤이 움직이고, 라이트가 움직이는 등 모든 것이 무인시스템화 돼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회사의 경우는 뉴스 스튜디오를 여자 혼자서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컨트롤기에 앉아 라이트 각도를 조절해서 빛을 비춰주고, 컬러는 몇 번 컬러 돌아가고, Pan-tilt 까지 다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조명하는 인원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멀었다지만 지금부터 이론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조명의 존재 유무마저도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면 조명장비가 점점 좋아지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신장비부터 들여오는 것입니다. 들여오는 회사도 책임이 있지만 방송사 관리자들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오퍼레이팅 할 수 있도록 업자 측에서는 확실하게 교육시키고 방송사 관리자들은 실무자들이 활용하기 편하고, 충분히 기계를 이해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특수조명이 발전하려면 조명 관련 용역회사를 키워주어야 합니다. 방송사의 자회사들에게 모든 걸 감당시킨다면 특수조명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MBC 경우만 해도 용역사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상철 | 신입사원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그나마 좀 색다른 것이 NHK 연수 교재입니다. 그 외에는 조명의 Key Light가 어떻다는 식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데이터를 구하기도 힘들고, 막상 구해도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어볼 선배가 없어 힘듭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조작해보고, 스스로 이해하는 식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조명기술을 터득하기 때문에 조명하는 사람마다 스타일과 이론이 조금씩 다르다는 문제점을 파생시키기도 합니다.

책은 책대로, 선배들은 선배들대로 다 달라서 어떤 것이 정석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조명은 그 나라 국민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은 날카롭고 깔끔한 국민성에 의해, 연출되는 조명도 역시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은 부드럽고 여유 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 때는 일본식, 어떤 때는 유럽식을 쫓다 보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컬러, 조명 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맞는 조명을 정립시켜 보고 싶습니다.



하루에 보통 4~5개 프로그램을 녹화하는데
각 프로그램 세트마다 다 쫓아다녀야
하므로 한 편을 끝나자마자
다음 프로그램으로 가서 조명 설치하고
끝낼 때까지 보통 2시간의 시간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매번 똑같은 생활의 반복
속에서 정신적인 여유나 육체적인
휴식을 찾기로는 불가능합니다.

- EBS 이상철씨



사회자 | 삼화양행은 국산 장비를 제조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기연 | 예, 없습니다. 삼화는 조명 전문 오판상으로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만들어도 판로가 없어 제작비의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조명뿐이 아니라 모든 장비가 다 그렇습니다만 제조 업자들이 단지 물건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쓸 만한 장비를 만들어보겠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관리자나 경영자들도 무조건 싼 것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싸더라도 질이 좋고 실무자들이 원하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위찬 | 얼마 전까지 만해도 국산 장비의 80-90%를 국내 조명제조업체인 '대영'이 납품을 했었는데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지 실제로 방송국에서 사용할 때 중요한 부분은 수입품을 쓰고 국산은 베이스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산 조명이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KBS에서 먼저 조명 종감독 아래 모든 조명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명분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자 | 'TV의 기본은 조명이다. 기본을 도외시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누가 기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명인들이 조금씩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조명기술자가 아닌 예술을 창조하는 조명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이위찬 | 남이 도와주긴 힘든 일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 조금씩 풀어나가 위상 정립을 해야겠습니다.

사회자 | 엔지니어가 다른 분야보다 능동적이지 못한 것은 감출 수 없는 치부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규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때만이 사라질 것이고 올바른 기술인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조명에 관련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 연합회로 보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수 있고, 나의 이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모티브가 되어 조명인들과 모든 방송인들의 인식개선에 영향을 주고 지속적인 조명인 모임을 마련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